

DJ센터 2전시장 5·18자유공원내 건립 논란

광주시 계획 수립 건립 추진 2008년 오월단체 반대로 철회 인근 주민 의견 수렴도 없어 일방통행식 정책 비판 목소리

광주시가 광주시 서구 치평동 5·18자유공원 내 잔디공원과 5·18교육관을 없애 '김대중컨벤션센터' (이하 DJ센터) 제2전시장을 건립하겠다는 계획을 마련해 논란이 일고 있다. 5월 단체들이 이미 '5월 사적지 훼손'을 우려해 철회했던 방안을 다시 꺼낸데다, 도심 속 공원을 산책로 등으로 활용해온 인근 시민들의 의견 수렴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일방통행식 정책'이라는 비판이 터져나오고 있다.

21일 5월 3단체 등에 따르면 광주시는 최근 DJ센터 제2전시장 건립 대상지를 기존 DJ센터 제1주차장에서 5·18자유공원으로 옮기는 변경 계획안을 마련, 추진 중이다.

광주시 서구 치평동 5·18자유공원 내 2만1750㎡(잔디공원 1만 4688㎡+518교육관 일부 7062㎡)에 DJ센터 제2전시장을 짓겠다는 게 광주시 구상이다.

전시장(2개)과 회의실(10개) 등을 갖춘 지하 2층·지상 2층(건축 연면적 1만



8300㎡) 규모로, 광주시는 1083억원을 투입해 오는 2023년까지 조성한다는 입장이다.

광주시 계획대로라면 현재 잔디광장이 사라지면서 시민들이 산책할 공간을 잃어버리게 된다. 5·18영상·전시실을 갖춘 자유관도 5·18교육관으로 옮기고 5·18교육관 인근 부지도 전시관 조성에 사용된다.

광주시는 지난 2018년부터 DJ센터 제2전시장 건립 필요성에 따라 올 들어 DJ

센터 1주차장을 대상지로 검토하다 DJ센터측 요청을 반영해 5·18 자유공원으로 변경했다는 입장이다.

DJ센터측은 5·18 자유공원이 제1전시장과 인접해 연계·접근성이 좋고 직사각형 부지를 확보할 수 있어 이용 효율성이 높은 점 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존 대상지인 1주차장 부지의 경우 삼각형 형태로 공간 활용에 제약이 있는 점, 자연 녹지부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

가 필요한 점도 반영됐다.

하지만 5월 단체 등이 지난 2008년, 5·18자유공원 부지를 제2DJ센터 건립 부지로 조성하려는 광주시 계획을 놓고 '사적지 훼손이 불가피하다'며 공식적인 반대를 표명해 철회한 뒤 반복한 것이라 '믿어붙이기식 행정'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자유공원 잔디광장 등을 도심 속 산책로로 이용해온 시민들 간 공감대도 형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라는 점도 시민들 반발을 사고 있다.

인근 아파트 주민 등 하루 수백명이 아침 저녁으로 운동 코스로 이용하는 잔디공원을 없애면서 대안을 제시하거나 의견 수렴조차 밟지 않았다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5월 단체들도 고민중이다. 제2전시장을 찾는 방문객들이 사적지를 찾는 '효과'도 기대할 수 없다는 말도 나오지만 시민들 불편을 감수하면서까지 상무대 법정과 영창시설 등 사적지 보존을 내세우며 반대했던 기존 입장을 바꿀 명분을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5월 단체들과 협의를 진행중"이라며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근린시설을 잃게 되는데 따라 제2전시장에 옥상공원등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 교사채용시험 공·사립 같은 날 실시 전교조 "임용고시 수험생들 큰 혼란" 반발

광주교육청이 올해 사립학교 교원의 위탁 채용시험(필기시험)을 공립시험일과 같은 날에 실시할 방침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 광주시교육청은 11월로 예정된 '2021학년도 사립학교 교원의 교육청 위탁 채용시험'을 공립시험일과 같은 날 치를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임용고시 준비생들은 공·사립 모두 지원할 수 있었던 것들을 방치한다. 이렇게 되면 임용고시 준비생들은 공·사립 모두 지원할 수 있었던 것들을 방치한다.

광주시부는 "사립학교 채용 비리가 만연한 상황에서, 법인이 내정한 사람이 정규교사가 되기 쉽게 하는 기반적인 위탁 채용 시험을 즉각 중단하라"고 덧붙였다.

한편 광주시교육청은 사립학교 채용 비리에 대한 의혹이 확산하면서 2018년부터 '사립학교 신규교사 위탁채용 전형 방식'을 도입해 공립학교 필기시험 날과 다른 날에 필기시험을 치러왔다. 2018년 6개 법인 15명, 2019년 6개 법인 19명, 2020년 16개 법인 67명이 위탁채용 방식으로 선발됐다. 올해는 100여 명의 교사를 선발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부는 시 교육청이 지난 2월 이 같은 계획을 수립해 놓고도 알리지 않아 임용고시 준비생들이 혼란에 빠졌다고 밝혔다. 이들은 보도자료를 내고 "교육청이 사립법인들의 요구를 수용함으로써 공·사립학교 필기시험을 모두 준비하는 예비교사들의 공부 부담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광주시부는 "사립학교 채용 비리가 만연한 상황에서, 법인이 내정한 사람이 정규교사가 되기 쉽게 하는 기반적인 위탁 채용 시험을 즉각 중단하라"고 덧붙였다.

한편 광주시교육청은 사립학교 채용 비리에 대한 의혹이 확산하면서 2018년부터 '사립학교 신규교사 위탁채용 전형 방식'을 도입해 공립학교 필기시험 날과 다른 날에 필기시험을 치러왔다. 2018년 6개 법인 15명, 2019년 6개 법인 19명, 2020년 16개 법인 67명이 위탁채용 방식으로 선발됐다. 올해는 100여 명의 교사를 선발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조선대병원, '2차 방사선 비상진료기관' 지정

조선대병원이 최근 '2차 방사선비상진료기관'으로 지정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39조에 따라 방사능 누출사고 등으로 피폭환자 발생시, 현장 응급진료 및 피폭환자 치료 등을 담당하기 위해 전국 권역별 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있다. 원자력안전위는 기존 23곳의 의료기관으로 운영하던 방사선 비상진료기관 체계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8곳을 방사선 비상진료기관으로

추가 지정했다.

조선대병원에는 ▲방사선피폭환자에 대한 응급진료 등 방사선비상진료 ▲응급 환자 이송 ▲방사선 비상 진료교육 참여 ▲방사능 오염 환자의 진료, 후송 업무 등 방사선 비상진료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조선대병원 관계자는 "이번 방사선비상진료기관 지정에 따라 조선대병원은 광주·전남에 위치한 한빛원전과 다양한 방사성 동위원소의 의료적·산업적 이용에 따른 재난 발생시 의료 지원을 맡게 됐다"고 말했다.

/최희중 기자 chae@

고3 전국 첫 학력평가...광주·전남 2만 4000여명 응시

'코로나19' 사태로 연기돼 사실상 첫 전국단위 대입 수능모의고사가 된 전국연합학력평가(학평)가 21일 광주·전남에서 2만 4000여 명이 응시한 가운데 치러졌다.

광주에서는 53개교 1만 1553명이 시험을 치렀고, 전남에서는 94개교 1만 2685명이 응시했다. 이날 평가는 오전 8시40분부터 오후 4시32분까지 국어, 수학(가·나형), 영어, 한국사, 탐구(사회·과학) 5개 영역으로 진행됐다.

대체적으로 평이한 난이도를 보인 가운데 수리 '가'는 상대적으로 변별력이 높게 출제됐다는 평가다. 국어는 문법이나 문학에서 2개 문항 정도가 어려웠고, 수학 '나'형에서는 3개 문항이 난해한 것으로 분류됐으나 대체적으로는 평이한 수준이

라는 게 진학담당 교사들의 설명이다. 경기도 교육청 주관으로 시행된 이번 평가는 성적표가 산출되는 사실상 첫 전국 단위 모의고사다. 3월 평가는 코로나19로 원격 진행된 데다 등교개학 이전에 치러져 성적표도 나오지 않았다.

6월, 9월 모의평가는 수능을 출제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출제하고, 재수생 등도 응시해 수능 예비고사 성격으로 볼 수 있는 반면 학력평가는 교육청이 주관하고 재학생만을 대상으로 해 수능과 직접적으로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한편, 고열증세 등으로 선별진료소나 보건소로 이송됐거나 귀가조치돼 시험을 치르지 못한 학생은 광주에서만 40여 명에 달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

호남대 신입생·재학생 대상 6월 1~8일 e스포츠대회

호남대학교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재택수업과 생활방역 등으로 지친 학생들에게 활력을 제공하기 위해 신입생과 재학생이 함께 참여하는 '2020 HNU-챔피언' e스포츠대회(2020명량전)를 개최한다.

오는 6월 1일부터 8일까지 전체 학과가 참가하는 '2020 HNU-챔피언' e스포츠대회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비대면·무관중 경기로 치러지며 최고 온라인 인기 게임인 리그 오브 레전드(LoL)로 진행된다.

올해 개설돼 첫 신입생을 맞은 e스포츠 산업학과와 총학생회 주관으로 열리는 이 대회는 학과별로 5명이 한팀을 구성하되, 반드시 신입생 2명이 참여하도록 학과별 대결을 벌인다. 또 중국,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몽골 등의 유학생들은 이베트 경기로 국가별 대항전을 치를 예정이다.

박상철 호남대 총장은 "전체 학생들이 등교하기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 같아 계기를 통해서나마 학과 선배배간 협동심과 연대감을 강화하고 스트레스를 풀 수 있도록 온라인 게임대회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최희중 기자 chae@



무더위 피할 도심 그늘막 설치

21일 오전 광주시 북구 전남대학교 후원에서 북구청 안전총괄과 직원들이 더위를 피할 그늘막을 펼치고 있다.

/최희배 기자 choi@kwangju.co.kr

모던 슬라브옥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옥상지붕공사

옥탑이 없는 평 슬라브
주택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옥상 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스틸방수시공모습

철재시공모습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디자인 등록 제30-0934833호
제30-0949873호

062)531-3530 H.010-9229-3530

(트윈스틸) 시공문의

의료광고심의필 제 191202-중-102291호 www.woori-hospital.com

개원 17년간의 임상경험을 통한 정형외과 진료 첨단우리병원

척추, 관절 중점 치료

척추 내시경, 미세 현미경 디스크 수술 / 무릎 인공관절, 어깨 관절경 수술

다양한 치료 경험을 통해 수술의 높은 만족을 드리려 노력합니다.

대표전화 062) 970-6000 광주 과학기술원 첨단 쌍암공원 앞 위치